

15세기 국어의 'ㄱ' 탈락과 'ㄹ' 탈락 현상에 대하여¹⁾

-楞嚴經諺解를 중심으로-

엄태수

1. 서론

이 글은 15세기의 중요한 문헌자료인 능엄경언해를 살펴보고, 표기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당시의 몇가지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능엄경언해는 활자본과 목판본이 있는데 여기서는 1464년에 간행된 목판본 능엄경언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목판본 능엄경언해는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최초의 佛經諺解書로 이 뒤에 간행되는 많은 불경언해서의 規範이 되므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능엄경언해는 意譯이기보다는 그 原文인 口訣文에 그대로 대응되는 직역이므로 살아있는 15세기 언어의 반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음운현상은 표기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1987년 서울대학교 소장본(1464년 印出된 목판본)을 低本으로 한 계명문화사에서 영인된 책을 중심으로 기술된다. 서울대학교 소장본 卷2는 활자본으로 되어 있으나 영인에는 같은 목판본으로 바꾸었다. 먼저 書誌的인 면을 고찰하고 다음에 음운론적인 면을 살펴기로 한다.

2. 서지적인 면

서지적인 사항은 새로운 것이 없고 기왕에 알려진 것을 종합하고자 한다. 능엄경언해는 版心書名 楞嚴經에 諺解를 붙인 것으로 券頭書名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으로 되어 있고, 外題書名은 大佛頂首楞嚴經이고 箋文書名은 首楞嚴經이다²⁾. 능엄경언해라는 서명은 다른 책과 혼동을 가져오지 않는 한 간편하게 하려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능엄경언해의 저자는 進首楞嚴經箋에 '...御譯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라 했고, 興天寺 鍾銘에도 '親自譯楞嚴經...'으로 되어 있어 자칫하면 그 문면대로 세조가 단독으로 친히 번역한 것으로 되기 쉽다. 실제로 大堤閣에서 영인한 책의 解題는 韓國古典叢書刊行委員會가 한 것인데, "本書는 禪法의 要義를 말한 것으로 朝鮮朝 世祖七年에 世祖가 親히 諺解하여 刊行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1)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 안병희(1982: 284).

한계희, 김수은 등의 跋文에 세조가 번역하기를 명했다는 기록과 이 방대한 번역사업(10권 10책)을 짧은 기간(6월 11일--8월 22일)에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은 세조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또 御制跋 諺解 狹註에 “上이 입겨출 드르샤 慧覺尊者의 마기와시놀”이라 한 점으로 미루어 세조는 구절을 달고 한계희, 김수은 등이 번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³⁾.

능엄경언해 초간본의 간행연대 추정은 지금까지 나온 논문에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A. 김완진(1960)

(1) 활자본: 天順 6년 8월 21일(1462년)

(2) 목판본: 알 수 없음

B. 안병희(1974)

(1) 활자본: 세조 8년 10월(天順 6년 1462)

(2) 목판본: 이듬해 8월(1463)

C. 안병희(1979)

(1) 활자본: 세조 7년 10월(1461년)

(2) 목판본: 1462년

D. 한영균(1987)

(1) 활자본: 세조 7년 10월(1461년)

(2) 목판본: 세조 8년(1462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완진(1960), 안병희(1974)는 활자본의 초간 연대를 1462년으로 잡는데 비해서 안병희(1979)는 1461년으로 잡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金守溫跋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桂陽君璿의 箋을 중심으로 하느냐의 차이에 있다. 김수은 발은 1461년 10월에, 계양군회의 전에는 1462년 8월 21일자로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안병희(1979)에 밝혀져 있듯이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된 활자본 卷1에 목판본의 箋이 없음으로 해서 활자본의 초간 연대는 箋의 기록을 따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활자본의 초간 연대는 1461년이 정확하다. 그런데 목판본은 1462년판이 초간이고 1464년의 수정본이 있다. 그 근거는 1462년판이 阿難, 般若의 첫글자 ‘阿, 般’의 독음이 ‘팍, 반’으로 되어 있는데, 1464년판은 ‘팍, 반’로 수정되어 있다⁴⁾.

김완진(1960)에 의하면 활자본은 강희안의 서체인 율해자(1456년 주조)로 찍혀 있는데, 半葉匡郭이 274*181mm이고, 목판본은 222*191mm로 되어 있다. 한영균(1987)에 의하면 목판본은 四風雙邊으로 214*181mm로 되어 있고, 목판본인 가람본은 216*178mm로 되어 있다. 목판본과 활자본은 행수가 같은 9행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능엄경언해의 활자본과 목판본의 소장처는 안병희(1979)에 잘

3) 김완진(1960; 72-74).

4) 안병희(1974; 19-20). 그런데 서울대학교 소장본으로 영인한 계명문화사 本에는 (1)-(7)권은 이렇게 고쳐졌으나 (8)-(10)권은 고쳐져 있지 않았다.

소개되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

- 卷1 : 誠庵文庫
- 卷2 : 서울대 도서관
- 卷3, 卷4 : 전하지 않음
- 卷5 : 서울대 가람문고, 日本天理圖書館
- 卷6 : 日本天理圖書館
- 卷7, 卷8 : 동국대 도서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卷9 : 金亨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卷10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목판본은 1464년판에 의한 인출본이 상당히 많이 전한다. 서울대와 동국대의 도서관에 그 전질이 있다. 동국대본은 題簽까지도 인출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책을 저본으로 한 영인본이 1959년 동국대에서, 다시 1977년에 대재각에서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연산군 원년에 목판본이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3. 음운론적인 면

3.1 'ㄱ'탈락과 표기 'ㅇ'의 문제

중세국어에 'ㅇ'은 文字 그대로 '零'이 아니라 두가지 종류의 'ㅇ'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하나는 음절표시만을 나타내는 소극적 기능의 'ㅇ'과 다른 하나는 음소를 나타내는 적극적 기능의 'ㅇ'이다. 이러한 견해는 李基文(1972b/80;16-23)에서 주장되었는데, 그 이유는 15세기 표기법의 검토에서 비롯되었다. 15세기 표기법은 음절적이어서 발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물애', '살오디', '알어늘' 등 'ㄹ' 아래서 'ㅇ'이 쓰일 때, 'ㄹ'이 아래로 내려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이때의 'ㅇ'은 '零'이 아니라 음소인데, 그것은 'ㄱ(k)'에서 변화된 유성 후두마찰음(h)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모든 'ㅇ'은 음절이 시작한다는 기능만 가지는 空音素라는 주장이 있다. 鄭然燦(1987)에서 논의된 것으로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가. 후음계열에 여러 문자가 나타난 것이 모두 음소에 대응된다는 생각은 보편적인 언어현상에 위반된다.
 - 나. 解例에 'ㅇ'을 淡而虛로 설명한 것은 음소적 자질이 없기 때문이다.
 - 다. 'ㅇ'은 단지 음절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기능의 단위로 쓰였다.
 - 라. 표기의 검토에서 'ㅇ'이 어떤 음소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예를들어 모음 사이의 'ㄹ'은 'vㄹ-v'로도, 'v-ㄹv'로도 발음될 수 있다. 'ㄹㅇ'로 표기된 것은 단지 전자로 발음됨을 의미할 뿐이다.

5) 卷3은 1986년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구입 소장함(김영배(1991)).

능엄경언해의 ‘ㄹㅇ’의 표기는 한자어의 경우를 제외하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ㄱ’으로 교체하는 ‘ㅇ’과 교체가 없는 ‘ㅇ’이다. 우선 후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2) 날오매(1:9), 일우다(1:26), 울워속와(1:34), 들우미(2:82)

(3) 날어(1:28), 덜어(1:65), 올라(1:105), 쌀아(2:15)

(2)와 (3)은 ‘ㄱ’과 교체하지 않는다. 피사동의 ‘오/우’인 (2)의 경우는 ‘ㅁ’에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⁶⁾. 이들에게 나타나는 ‘ㅇ’의 음가를 구태여 ‘ㄱ’에서 변화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ㄹㅇ’의 ‘ㄱ’이 ‘ㅇ’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예를들면 ‘활개(1:67), 불고미(1:79), 일굴(1:89), 늘거(1:105)’ 등의 ‘ㄱ’은 그대로 있다. 이와 더불어 ‘ㄹㅎ’, ‘ㄹㅎ’의 존재도 문제다. 요컨대 ‘ㄹㅇ’에서 변화하는 ‘ㄱ’의 문제는 ‘ㄹ’의 성격, ‘ㄱ’의 성격, 이들 사이의 경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교체하는 ‘ㄱ’에 관심을 두기로 한다.

‘ㄱ’과 ‘ㅇ’으로 교체하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4) 니를애(1:9), 알애(1:26), 그울애(1:46), 헐애(1:77), 마리오(1:16), 밍글오(1:31),알오(1:113), 달어(2:45), 알어든(1,61)

그런데 능엄경언해를 검토해 보면 (2)와 (3)의 경우는 아래의 (5)처럼 ‘ㄹ’을 아래로 내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4)처럼 교체하는 ‘ㅇ’의 경우는 그러한 혼란이 없다.

(5) 아로디(1:19), 드로매(1:20), 무루물(2:55), 모로매(2:55), 드러(1:66), 아라(2:2)

이러한 사실은 교체하는 ‘ㅇ’과 그렇지 않은 ‘ㅇ’을 능엄경언해의 필자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ㄱ’과 ‘ㅇ’의 교체가 그 당시의 공시적 음운규칙의 반영이라는 주장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ㅇ’이 어떤 음성적 자질을 표시할 수 있는지 또는 단지 음절 초성의 기능만을 표시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 예컨대 ‘xa’의 ‘a’가 공시적으로 유성후두마찰음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쉼이냐의 문제와 ‘xa’가 ‘yb’로 교체할 때, ‘a’와 ‘b’의 관계를 따지는 것은 다르다. 그런데 ‘a’가 공시적으로 무엇인지는 우선 교체형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표면 교체형들은 基底形과의 관계에서 규칙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표기는 기저형도 표면형도 아니라는 점이다. 표기를 보고 당시 언어의 기저음소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헌자료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정밀한 해석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본고는 교체하는 ‘ㄱ’과 ‘ㅇ’이 대상이 되므로 공시적 교체가 없는 역사적인 변화로 ‘ㅇ’이 된 것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즉 물애(沙), 놀애(歌), 달애-(誘) 등의

6) 李基文(1972b:23)에서 월인석보에 ‘ㄱ리불-’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명사, 동사 어간은 제외한다⁷⁾. 또한 교체가 활발하지 못한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도 제외한다. 이 경우는 간혹 교체를 보이지만 이미 사라진 규칙의 잔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활발한 교체가 일어나는 곡용과 활용어미에 한정된다.

곡용과 활용어미를 중심으로 15세기의 'ㄱ'과 'ㅇ'의 교체 현상을 다른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 체언어간이 모음과 'ㄹ'로 끝날 때 그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첨사는 'ㅇ'으로 교체한다⁸⁾.

[예: 과/와, 곳/웃, 곱/음, 가/아, 고/오]

닐음과 서르 굴하니라(능엄2:117) / 뇨양즈논 아히 時節와 엇더뇨(능엄2:5)
 넷 이물 스랑하논 뜰곳 속절업시 잇도다(두언8:64) / 아돌웃 나거든(월석8:83),
 이 일웃 니르면(월석13:44)
 거름곱(월석2:37), 혼날곱(월석1:9) / 아돌음(석보6:9), 디위음(월석8:91)
 現前엿 六根은 하나카 여섯가(능엄4:104)/ 혼 體아 혼 體 아니아(능엄3:93) --
 예의 : 亡한 해음 아니가(능엄10:78)
 어니 이 른고(능엄2:48) / 셋근 거시 므슴 얼굴오(능엄2:97), 뉘 이 靑雲 서리
 엿 器具오(두언16:18) --예의 : 虛空 滅호몬 므슴 앞즈고(능엄3:84), 부떼 누고
 (월석21:34), 이 므스고(금강산가 2:41)

- (7) 용언어간이 'y', 'ㄹ'로 끝날 때 그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용언어마는 'ㅇ'으로 교체한다(단, 명사형어미 '기'는 예외이고, '디-(落)에서 파생된 사동어간 '디-', 계사 '이', 그리고 선어말어미 '니'와 '리' 뒤에서도 교체한다).

[예: 거/어, 게/에, 고/오, 거늘/어늘, 고라/오라, 판디/완디]

니거시니(월석8:93), / 주리어니(석보9:13) 보내어시논(용;25), 예의 : 아니어
 시니(월석23:93), 아니어니(월석2:53)
 묻게(월인;69), 나시게(석상 序;3) 업게 드외니(천강上;기69) / 히에 드외어늘
 (능엄5:56) 드외에(석6:1)
 드르시고(용;108) / 알오(곡148;)
 스러디거늘(월석21:7) / 굴외어늘(용3;)
 호고라(월석1:13), 더으고라(두언15:39) / 보내오라(월석7:15), 말오라(석보11:30)
 지스시판디(월석21:18) / 願을 세완디(월석21:15)

7) 李基文(1972b/80:19-20)에서 이들 표기는 'ㅇ'의 음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8) (1)과 (2)의 예들은 허용(1975)에서 주로 인용한 것이다. 자료의 잘못된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오려다(월석10:85), 나소리어다(석상23:54)

(6)과 (7)의 예들을 통해서 15세기에 어떤 음운계약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우선 교체형에 대한 관계는 규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예컨대 현대국어에서 주격조사 '이/가'의 교체는 생성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선행하는 위치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규칙적으로 교체하지만(이는 보편음절구조인 CV연쇄로 발음하고자 하는 제약에 지배받는다), 음운론적으로 동기가 된 유일한 기저형을 세워서 두개의 표면형을 도출하는 방법은 없다.

형태소의 기저형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유일한 기저형을 세울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본고에서 다루는 'ㄱ'과 'ㅇ'의 교체는 유일한 기저형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ㄱ'을 기저형으로 삼고 'ㅇ'을 탈락규칙에 의해서 유도한다. 이는 'ㄱ'과 'ㅇ'의 비대칭적인 분포에 의해서도 신뢰가 가지만(즉 'ㄱ'의 탈락은 'ㄷ'과 모음 뒤라는 제한된 분포에서만 일어난다) 역사적으로도 'ㅇ'이 'ㄱ'에서 변화한 사실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이미 위에서 언급한 李基文(1972b)에서 논의된 것임). 이러한 이유로 'ㄱ'탈락규칙을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제 문제는 'ㄱ'탈락규칙이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ㄱ'탈락의 환경은 곡용의 경우와 활용의 경우가 다르다. 즉 체언의 경우는 'ㄷ'과 모음뒤에서 발생하고, 용언의 경우는 주로 'ㄷ'과 'y'뒤에서 발생하고, 계사 '이', 선어말어미 '니', '리', '다:-' 뒤에서 발생한다⁹⁾. 이러한 환경의 불일치는 두 규칙을 하나로 묶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 음운론적인 규칙은 음성학적인 동기가 있어야 한다. 체언의 경우는 'ㄷ'과 모음의 공통성을 [+vocalic]으로 묶을 수 있지만 용언의 경우는 난감하다. 더우기 계사 '이' 등을 포함할 경우는 구차한 이유를 달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러한 분포상의 불일치가 존재하는가? 우선 이 규칙이 시기적으로 확산되는 규칙인지 소멸되는 규칙인지 생각해 보자. 'ㄱ'탈락은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소멸된 규칙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규칙의 소멸은 이미 15세기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분포의 불일치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먼저 용언의 경우에 'ㄷ'과 모음 뒤에서 일어나던 'ㄱ'탈락이 다음 시기에 'ㄷ'과 '이'모음 뒤에서 일어나고 그 이후 15세기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는 없을까? 필자는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ㄷ'탈락의 환경변화와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규칙의 소멸과정은 대체로 광범위한 환경에서 일어나다가 협소한 환경으로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한편 안병희(1965)에서 논의된 의문형 '고/오'에 대한 능엄경언해의 구결문과 번역문의 비교를 보면 'ㄱ'탈락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가 축소된 음운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9) 여기서 계사 '이' 등을 추상적으로 분석하여 'y'로 통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단지 본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상적인 분석을 배제하는 입장에서 쓴다.

(8) 구결문

云何不曉오(1;52), 何以故오(1;70), 何不見吾인 不見之處오(2;36)

(9) 번역문

엇데 일후미 世界顛倒오(7;75), 엇데 일후미 세가짓 漸次오(8;2), 엇데 六報오(8;95)

구결문에서는 '고'로 나타나야 할 곳에 선행음이 'y'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더라도 모두 '오'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번역문에까지 미쳐 한자 뒤에서는 'y'가 아니더라도 모음 뒤면 '오'가 쓰인 경우가 많다. 즉 구결문이 번역문보다 전시대의 언어사실은 반영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전 시기의 'ㄱ'의 탈락은 15세기 당시의 현상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용언의 'ㄱ'탈락이 이전의 어느 시기에 'ㄹ'과 모음 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체언의 경우와 동일한 환경이 된다. 그런데 용언의 경우에 왜 체언보다 먼저 규칙의 소멸을 경험하였을까? 그 이유는 용언이 더 교착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용언어간의 의존성은 어미와의 결합된 형태로 보존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ㄱ'이 탈락하면 형태소의 고정성을 잃어버릴 확율이 더 크다. 만일 'ㄱ'이 탈락한다면 모음축약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형태소의 고정성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음 뒤에서 기저형인 'ㄱ'으로 회복하여 보존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체언 어간은 자립성이 강하므로 교체되는 조사와의 결합에도 크게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ㄱ'이 탈락한 곡용어미는 통사규칙이나 전후의 맥락에 의해 그 의미가 보충되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용언에서의 교체는 규칙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 용언의 'ㄱ'의 교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ㄹ'과 'y'뒤에서의 교체, 다음으로 계사 '이'등의 특정 형태소에 관련된 교체, 마지막으로 김종규(1989)에서 논의된 것으로 '리'로 끝나는 용언어간 뒤에서의 교체현상이다¹⁰⁾.

결론적으로 말해 후자의 두 경우는 규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ㄹ'과 'y'뒤에서의 교체만을 규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음운론적인 규칙을 설정함에 있어서 추상성을 배제한다면 'ㄷ'나 계사 '이', 그리고 선어말 어미 'ㄴ/리'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단일 형태소와 관련된 교체로서 음운 범주와 관련된 규칙으로 볼 수 없다. 즉 계사 '이' 뒤에서의 'ㄱ'과 'ㅇ'의 교체는 계사와 관련된 문제이지 음운 '이'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형태론적으로 제약된 교체라 할 수 있다¹¹⁾. 그러나

10) '리'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ㄱ'이 탈락하는 많은 예를 보여준다. 썩리어늘(곡;189), ㄱ리어늘(蔽 남上;54), ㄱ리오(남上;76), 어리오(遇 석11;28), 드리오(獻 금삼2;), 느리어시늘(용;8), 서리어시니(두6;26), 가어든(월7;8), 등. 그러나 이들은 규칙적인 현상이 아니다. 규칙의 소멸에 의한 잔재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유독 '리' 뒤에서 아직 'ㄱ'의 탈락 흔적을 보이는 것은 '리'가 가지는 음운적인 성질이 작용했을 것이다.

11) 이와 관련해서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의 'ㄱ'의 교체는 분명히 규칙이 소멸했음을 보여준다.

‘ㄹ’과 ‘y’뒤에서의 교체는 다르다. 이는 분명히 형태소와 관련된 교체가 아니라 일정한 문법 범주에 소속된 음소의 문제다. ‘ㄹ’과 ‘y’ 뒤에서의 교체는 현저한 규칙성을 띠고 있다. 용언 범주에서 이런 환경만 주어지면 예외없이 적용되므로 규칙으로 설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ㄹ’과 ‘y’가 어떤 공통의 음성 자질로 묶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규칙의 축소에 의한 이러한 현상은 여러 언어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에 있어서도 ‘ㄹ’탈락이 15세기에는 체언과 용언의 설정음 앞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나 현대국어에 오면 단지 ‘ㄴ’앞에서만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언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한다 해도 크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10) 용언 ‘ㄹ’탈락 규칙

$$K \rightarrow 0 / \{L, y\} + \underline{\quad}$$

또한 규칙(10)은 체언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므로 체언의 경우는 다음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11) 체언 ‘ㄹ’탈락 규칙

$$K \rightarrow 0 / [+vocalic] + \underline{\quad}$$

그런데 (6)에서 보듯이 체언의 경우는 몇몇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이 시기에 벌써 소멸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어떤 어휘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단지 기능이나 의미 변화를 겪은 요소가 먼저 변했으리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3.2 ‘ㄹ’탈락과 ‘ㄹ’뒤 경음화

15세기에 범주 의존적인 음운규칙 중에 ‘ㄹ’탈락 이외에도 ‘ㄹ’탈락이 있다. 엄태수(1988)에서 이에 대한 통시적인 변화의 과정을 추정해본 적이 있다. 이기문(1972b/80:34)에서 ‘ㄹ’이 치경음(ㄺ, ㄻ, ㄼ, ㄽ) 앞에서 탈락하는 역사적인 변화를 언급하면서 활용 뿐만 아니라 합성어, 파생어 등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말한다¹²⁾. 그러나 15세기에 곡용에서 ‘ㄹ’탈락이 보이지 않고, 복합어의 경우는 예외가 많은 것을

“姓이 이서사 韓리어니썬(농업2:24), 物中에 이 보미 업스려니썬(농업2:50), 반드기 아디 몰르려니썬(농업3:44)”. 위의 예에서 ‘ㄹ’ 다음에 ‘ㄱ’이 ‘ㅇ’으로 교체된 표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ㄹ’과 ‘어’가 축약되어 ‘려’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ㄹ’과 ‘y’뒤에서 ‘ㅇ’이 규칙적으로 표기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즉 규칙의 소멸로 인한 축약으로 해석된다.

12) 거기에서 ‘바늘질(두시언해25:50), 날돌(월인천강지곡 17장)’ 등의 예외를 설명하면서 ‘ㄹ’이 탈락하는 변화의 연대가 15세기에서 그리 멀지 않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생각할 때 15세기는 복합어의 ‘ㄺ, ㄽ’ 등의 환경에서 탈락규칙이 생산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려하면 송철의(1987;327)의 논의대로 활용에서 필수적으로 탈락하므로 'ㄷ'탈락 규칙은 활용 범주에 한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2) 뷔트디(석보19;7), 내미니(두언23;30), 기우디(석보19;7)

(12)는 설정음으로 시작하는 활용어미 앞의 'ㄷ'탈락을 보여준다. 한편 '갈지계(자회 상 15), ㄹ놀지계(두언6;45), 물자새(자회, 중15), 열둘(월석2;13)' 등에서 'ㄷ'탈락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들 복합어(합성 및 파생)에서의 'ㄷ'이 탈락하지 않는 이유는 'ㄷ'탈락 규칙이 설정음(ㄴ, ㄷ, ㄱ, ㅈ, ㅊ)으로 시작하는 용언어미 앞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용언어간말 'ㄷ'탈락 규칙

L---->0 / _____+[+coronal]

(13)의 규칙은 능엄경언해를 살펴 보아도 동일하다. '여디 아니호시면(5;30), 아나니(5;21), 아시리오(5;48)' 등에서 보듯이 능엄경언해에서 위의 규칙에 대한 예외가 없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ㄷ'의 탈락은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활용의 경우에만 규칙적이다¹³⁾ 단지 'ㄴ' 앞에서만 생산적인 점이 중세국어와 차이가 있다. 현대국어에서 용언어간말의 'ㄷ'은 '오오', '읍니', '으시' 등에서도 탈락하지만 이는 특정 형태소에 관련된 것으로 중세국어의 흔적으로 보인다. 즉 '오오'나 '읍'은 중세국어의 '습'에 소급된다. 이렇게 보면 'ㄷ'탈락은 그 적용의 환경을 계속 축소해 왔다고 보여진다.

다름으로 'ㄷ'뒤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ㄷ'탈락과 다르게 비슷한 환경에서 'ㄷ'뒤에 설정음을 경음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자어에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發達, 渴症, 殺生'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환경의 고유어에서 어근 내부 설정음은 이미 기저음을 경음으로 바꾸었다. '알뜰, 벌써, 불쌍, 살짝'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접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말써, 말쌍, 말쑤, 글써, 골짜, 굴뚝' 등의 예들은 사이시옷의 영향인지 아니면 'ㄷ'뒤의 설정음 제약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들 한자어나 어근 내부의 15세기 표기는 대체로 평음으로 되어 있어 경음화 현상이 존재했는지 안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불써(석보6;35)' 등의 표기로 보아 경음화 현상이 있다고 보여진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환경에서는 'ㄷ'이 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의 경우를 종합해볼 때 'ㄷ'과 설정음의 연쇄제약이 단어의 문법 범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엄태수(1988)에서는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ㄷ'과 설정음의 제약이 추상적인 차원에서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보았다.

이제 관형사형 'ㄷ'뒤의 표기를 살펴보고 그러한 표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13) '소나무', '바느질'에서 보여주는 'ㄷ'탈락은 규칙이 아니라 화석형이다. 새로운 표면형 [술라무]가 등장하는 것도 하나의 증거이지만 '물놀이' 등에서는 'ㄷ'이 탈락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자.

15세기의 표기법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공존하는 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저에서 상세히 밝혀졌다. 각자병서는 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사용되었고, 합용병서는 우리말 표기에 사용되었다. 각자병서는 또한 관형사형 ‘ㄹ’ 뒤에서도 사용되었다. 관형사형 ‘ㄹ’ 뒤에서는 ‘ㄹ+각자병서’型和 ‘ㄹ+평음’型이 공존하였다. 송철외(1987:353)에서는 전자를 음소적 표기로 후자를 형태음소적 표기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ㅎ’을 음소로 인정할 수 없는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먼저 전자의 표기는 표면형의 표기로 생각하고 후자는 기저형의 표시가 아니라(기저형의 표시라면 현대국어처럼 ‘ㄹ+평음’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관형사형 ‘ㄹ’ 뒤에서 발생하는 규칙적인 현상을 기호 ‘ㅎ’를 이용하여 표시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는 아래에서 좀더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의 논의들은 관형사형 ‘ㄹ’ 뒤의 모든 평음이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15세기도 동등하게 경음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능엄경언해를 검토해 보면 아래 (14)에서 보듯이 ‘ㄹㅎ+평음’의 표기가 압도적이다.

(14) 이슬 던 덴(3:8), 求露 제(3:87), 여회울 것(6:5). 흘 디니(7:23), 물흘 고디라(7:46)

그런데 관형사형 ‘ㄹ’ 뒤에 합용병서도 보이는데 이는 이미 그 당시의 기저형이 된소리임을 의미한다.

(15) 미출 짜해(3:16), 이실 쑤니(3:62), 굴홀 쓰르미라(3:63)

이 경우에는 ‘ㅎ’이 잘 쓰이지 않는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이 당시의 표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즉 ‘ㄹ’과 바로 평음이 결합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6) 모르실 썩(용 13장), 受辱수울 돌(법화4:42), 업슬 썩(능엄1:90), 이슬 띠 덴(능엄 1:51) / 물흘 던 덴(능엄1:51)

(17) 미들 거시니(석보6:11), 풀 거시(월석9:18), 아를 배라(석보19:5), 머구릴 뷔여(월석 1:45)

(16)와 (17)에서 보듯이 설정음은 평음과 ‘ㅍ, ㅌ, ㄷ’등으로 쓰기도 하고 ‘ㅍ’과 ‘ㅍ, ㅌ, ㄷ’으로도 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17)에서 ‘ㅌ, ㄷ’의 경우를 보려면 ‘ㅍ’이 쓰이는 것은 같지만 여기에 각자병서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¹⁴⁾, 나아가 ‘ㄹ+평음’

14) 예외적으로 ‘오실 꺾(월7:10), 물 불 꼬디라(법6:60), 물흘 꺼시라(석보6:38)’와 같은 표기가

의 경우까지 보인다. 능엄경언해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예가 보인다. ‘아니 홀 것 업도다(4:46)’. 음운론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의미 있는 것일까? 필자는 15세기 표기가 당시 표기자들의 언어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언어의식은 음성적인 측면과 음운적인 측면이 혼합된 것으로 이해한다. 필자는 설정음과 비설정음에 대한 표기의 차이가 음운론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15세기에 설정자음과 비설정음 자질은 국어의 운론적 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자질이다. 관형사형 ‘ㄹ’뒤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단적으로 15세기 화자들의 문법의식의 반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현대국어에서도 관형사형 ‘ㄹ’뒤에서는 경음화 한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설정음과 비설정음의 차이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15세기 표기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과연 비설정음 뒤에서 경음화를 미약하게 인식한 표기자들의 의식이 그 당시 정확한 언어사실을 반영하는 지는 의문이다. 표기를 통해서 추정한 표기자들의 문법의식과 그 당시의 객관적인 언어사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관형사형의 15세기 표기 ‘ㄹㅎ’에 이끌려 ‘ㅎ’을 기저음소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ㅎ’이 다른 음운론적 기능을 하지 않고 단지 경음화의 요소로만 쓰이기 때문에 온전한 음소의 기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능엄경언해의 표기를 보자.

(18) 읊길 씨오(1:4) : 촛궘 씨오(1:16)

이 經 닐글 사르미(1:17) : 니를 싸르미(1:18)

위의 예에서 ‘ㄷ+ㅅ’ 또는 ‘ㄹ+ㅅ’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ㅅ’이 된소리 기호라면 ‘ㅎ’은 단지 된소리됨을 표기를 위해서 사용된 표시에 불과하다. ‘싸르미’의 경우에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언제나 ‘사르미’로 쓰인다¹⁵⁾. 만일 ‘ㅎ+ㅅ=ㅅ’으로 가정하여 ‘ㅎ’에 어떤 경음화 요소 또는 적극적으로 음소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촛궘 씨오’에 보이는 ‘ㅎ+ㅅ’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는 ‘ㅎ’이 단지 뒷 요소가 된소리로 발음됨을 표기로 보여주는 단순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대국어 ‘살찌다’의 ‘ㅈ’은 경음인데, 능엄경언해에서 ‘살찌여(2:5)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살지디(1:10)’라는 표기를 통해서 ‘ㅎ’이 단지 관형사형 ‘ㄹ’뒤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ㅎ’은 경음화규칙의 ‘표시자’임을 보여준다.

관형사형 ‘ㄹ’ 뒤의 경음화는 음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자.

보인다. 아마도 이 경우는 관형사형 ‘ㄹ’뒤에 사용된 비설정음으로 시작하는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어휘로 보인다. 관형사형 ‘ㄹ’뒤의 경음화가 설정음에서 비설정음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선택된 최초의 어휘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15) ‘ㅅ’이 어두에 쓰인 경우가 보인다. 산시에(1:55), 쏘배(1:58), 쏘디(1:17) 등. 이는 다른 각자 병서인 ‘ㄱ, ㄷ, ㅂ, ㅈ’이 단독으로 어두에 쓰이는 경우가 없는 것과 크게 다르다. 관형사형 ‘ㄹ’뒤에 사용된 ‘ㅅ’과는 달리 이때의 어두 ‘ㅅ’은 합용병서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들 용례에서 앞의 두 예는 현대국어에서 평음으로 사용되는 것이 흥미롭다. 어두 합용병서의 음가 추정에 단서가 된다.

우선 규칙 적용의 결과는 평음이 경음으로 변하므로 일반적인 음운규칙과 차이가 없다. 문제는 관형사형 '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음운규칙은 운율적인 범주 내에서 음운들의 변별자질에 의해서 제약울 받는 경우와 형태.통사적인 범주 내에서 음운자질의 제약울 받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관형사형 'ㄹ' 뒤의 경음화는 형태.통사적인 범주에 제약받는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범주인 과거시제의 '은'이나 현재시제의 '는'의 경우는 경음화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형태.통사범주에 제약된 현상이 아니라 「관형사형 'ㄹ」이라는 형태소 그 자체에 제약받는 음운현상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으오', '읍', '으시' 앞에서 'ㄹ'이 탈락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즉 특정한 형태소에 의존하는 음운현상이다. Scalise(1984:66-67)에 의하면 'x--->y/___z' 라는 형식에서 z가 형태소이면 그것은 형태규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형사형 'ㄹ'뒤의 경음화도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떤 형태소에 한정된 음운규칙이 존재하는가? 이미 'ㄹ'탈락에 서도 보았듯이 전 시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규칙이 다음 시기에 형태.통사범주로 한정되고, 그것이 다시 다음 시기에 형태소에 한정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시기적으로 규칙의 선후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19)

형태소에 의존된 음운규칙 --- 형태.통사범주에 의존된 규칙 -- 운율범주에 의존된 규칙

이렇게 볼 때 관형사형 'ㄹ'뒤의 15세기 표기에 설정음과 비설정음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이 형태소에 한정된 규칙이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설정음 앞에서의 'ㄹ'탈락과 'ㄹ'뒤의 경음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두 현상은 탈락과 경음화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ㄹ'과 설정음이 제약된다는 공통의 특성을 공유한다. 단지 이 제약은 형태.통사적인 범주에 한정되거나 형태소에 제한되어 나타난다. 형태소에 한정된 규칙은 형태.통사적인 범주에 한정된 규칙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규칙이고 형태.통사적인 범주에 한정된 규칙은 운율범주에 의존적인 규칙보다 먼저 발생한 규칙이다. 이런 의미에서 'ㄹ'탈락 규칙보다는 경음화 규칙이 먼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글은 1464년 版으로 생각되는 서울대학교 소장본을 低本으로 한 영인본을 중심으로 했다. 이 영인본을 살펴본 결과 권(1)-(7)은 1462년 목판본에 「阿, 般」의 讀音 「하, 반」이 「합, 받」로 고쳐졌으나, 권(8)-(10)은 고쳐져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이유는 권(8)-(10)이 1464년 版이 아니라 1462년 版일 가능성과 한편으로 권(8)-(10)을 미처 교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2) 'ㄹ'뒤 'ㄱ'탈락은 범주 의존적인 규칙으로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체언어간 뒤에서 다른 하나는 용언어간 뒤에서 발생한다. 전자는 [+vocalic] 자질 뒤에서 발생한다. 후자는 'ㄹ'과 'y' 뒤에서 발생한다.

(3) 설정음으로 시작하는 용언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 한편 'ㄹ'뒤에서 경음화 현상이 일부 발견된다. 특정 형태소에 한정된 음운 규칙이 범주의존적인 음운규칙보다 더 오랜 규칙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어에 'ㄹ'과 설정음의 제약은 먼저 경음화 규칙을 경험하고 나중에 'ㄹ'이 탈락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영배 1991, 을해자본 능엄경언해 권3에 대하여, 국어학21.
 김완진 1960, 능엄경언해에 관한 몇가지 과제, 한글127.
 김종규 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90.
 송철의 1987, 15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16.
 안병희 1965, 후기 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건국대 학술지 6집.
 안병희 1973, 중세국어 연구자료의 성격에 대한 연구-번역양식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9-1.
 안병희 1974, 석보상절의 교정에 대하여, 국어학2.
 안병희 1979, 중세어의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규장각3.
 안병희 1982, 국어사 자료의 서명과 권책에 대하여,
 엄태수 1988, 국어 표면음성제약의 상위원리, 서강어문6.
 이기문 1972a,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기문 1972b/80,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한영균 1987, 능엄경언해 주해, 계명문화사.
 허용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Scalise, S.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 Foris.